민주화 초석 '광주정신' 세계가 인정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미와 과제

정부지원없이 민간단체·지자체가 주도한 성과

2013년까지 가톨릭센터에 아카이브 조성 보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이하 5·18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광주를 중심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 사회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또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기록유산 9개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 지원 없이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그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와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이 남아프리카,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각국의 민주화운동처럼 세계 곳곳에서 이야기되고 민주화의 상징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정치계, 민간단체 공조 성과=지난 2010년 강운태 광주시장, 김영진 국회의원, 조비오 신부, 강신석 목사, 지선 스님 등 4명의 상임고문, 광주시 교육감, 지역대학총장, 5월 단체 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등재추진위가 구성되면서 본격화됐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등 10명을 지도위원으로, 전국의 민주인권 인사들과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여성계 등 25명을 고문으로, 관련 전문가 10명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낯춰 분류하고 이를 영문화하는 작업을 무난히 마쳤다. 지난해 말 보수우익세력이 유네스코 본부에 등재 반대 의견서를 전달해 심사가 보류되는 우여곡절도 거쳤지만, 광주시와 등재추진위가 육군본부, 국회도서관 등 국가기관의 등재 동의서를 받아 올 초 2차 심사를 거쳐 결국 24일 밤(한국시간)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5·18 아카이브 설치 등 후속조치=광주시는 5·18 기록물을 광주가톨릭센터 내 5·18아카이브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영구적으로 보존·전시·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관리계획과 확인서를 등재신청서에 동봉해 유네스코에 제출한 바 있다. 광주시는 5·18 현장인 동구 금남로에 자리한 광주가톨릭센터를 2012년부터 리모델링해 이 '약속'을 지킬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산재해 있는 29곳의 5·18 사적지와 유물을 원형보존하고, 옛 도청별관이나 국군광주병원 등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시설물은 체계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2012년까지 7억원을 투입해 이들 사적지 및 유물 등을 연결시켜 순례할 수 있는 5월길(5·18 Road)을 조성할 예정이다.

5·18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UN 인권도시 지정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지수를 개발해 일상에서의 인권 증진, 세계인권도시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한 인권도시 이미지 정립 등을 거쳐 1년 후 UN 인권도시를 지정받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복안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이 25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과 유품 등이 보관된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내 지하 문서수장고를 방문, 당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17년만에 공개된 이 문서 수장고에는 기록물 200여점과 사망자 유품 291점 등이 보관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기록물 보관 수장고 17년만에 공개

2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과 유품 등이 보관돼 있는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내 문서 수장고가 17년 만에 공개됐다.

이 수장고에 있는 자료 일부는 5·18 31주년을 맞아 센터 내 전시실에서 일반에 공개됐으나 수장고에 있는 호소문 등 원본 자료는 항습·항온 등 보관 문제로 지금까지 비공개돼 왔다.

수장고에는 5·18 당시 기자들의 취재수첩, 종교인들의 호소문, 신문자료, 필름 등 200여점과 사망자들의 유품 291점등이 보관돼 있다.

이들 기록물과 유품은 지난 1994년 강운태 시장이 1994년도 관선시장 시절 유족, 신문기자, 시민 등으로부터 수집해 동구 계림동 시청사 내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료실을 만들어 보관했다가 지난 2001년 5월 5·18기념문화센터가 개관하면서 지금의 수장고로 옮겨왔다.

강 시장은 이날 수장고를 방문하고 "사료실을 만들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지금 정신이 있느냐며 질책했는데 역사적인 사실이니 후대에 남겨야 한다고 답했다"며 "유족들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시장이 진상규명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자 자료와 유품을 선선히 건넸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광주시는 이들 5·18 기록물을 체계적 관리와 보존 차원에서 동구 금남로에 있는 광주가톨릭센터를 리모델링해 아카이브센터로 조성한 뒤 2013년 말 이전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기념물 자체에 대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 이를 잘 보존하고 알려 세계 각국이 5·18의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유네스코와 국내외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아카이브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각계 환영 메시지

"5·18 세계화 자랑스런 결정"

강운태 광주시장은 25일 환영사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는 5·18이 세계 민주화운동사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우뚝 서는 쾌거이자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온 세계가 인정한 자랑스런 결정"이라며 "31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 온 5·18과 광주가 긴 고난의 역사를 딛고 세계기록유산으로 활짝 피어났다"고 평가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유산이자, 세계 인류에게 인권과 자유를 각인시키는 숭고한 이념"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등재추진위원장을 맡아 등재 과정을 진두지휘한 김영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민주화운동사에서 가장 모범적이었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일부 보수단체의 반대에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한 국제자문위원회(ICA)와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윤현석·김지을 기자 chadol@

빛日만평

- 김종두

세계서 제일 불쌍한 전직 대통령으로…

"인권도시행사 유네스코와 함께 개최"

광주시 28일 범시민 보고회

강운태 광주시장은 25일 "내년부터 개최되는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를 유네스코와 함께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5·18 기록물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5·18 세계화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일상에서의 인권 향상 ▲세계 인권도시 센터로 발돋움 ▲UN 인권도시 지정 등의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어 "지난 16일 열린 국제인권 네트워크에 참가한 인권단체 대표와 각 도시의 시장들도 광주가 중심이 돼 매년 행사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5·18 기록물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유네스코와 협의를 통해 내년 행사의 공동주최, 세계평화상 제정 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등재추진위원회는 강운태 시장, 김영진 추진위원장, 5·18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실을 5·18 민주영령 앞에 보고하는 참배식을 갖는다.

오후 5시부터는 시청 문화광장에서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경과보고와 의식행사, 경축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범시민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함께 등재된 일성록은?

정조가 창안한 일기체의 연대기

영조부터 151년치 국정 기록 담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결정된 일성록(日省錄)은 조선 후기에 국왕의 동정이나 국왕이 결정에 개입한 국정의 제반 운영 사항을 매일매일 일기체로 정리한 연대기 자료다.

1760년(영조 36)에서 1910년(융희 4)까지 151년치 기록을 담은 일성록은 한 질만 편찬된 유일본이자 필사본으로 전 2329책이 모두 전한다.

일성록은 정조가 세손 시절에 쓰기 시작한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를 뿌리로 한다. 이 때문에 일성록은 정조의 창안물로 간주된다.

정조는 논어에 나오는 증자의 말 오일삼성(吾日三省), 즉, "나는 매일 세 번 반성한다"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을 반성하는 자료로 삼고자 이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일기는 정조가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후 국가의 공식 기록으로 편입된다. 정조는 규장각 관원들에게 매일매일 일기를 작성하게 한 다음 5일마다 그 일기를 정서해 자신에게 올려 결재를 받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성록은 정조의 개인 일기를 뛰어넘어 국정 일기로 전환된다. 일성록은 기존에 세계기록유산에 이름을 올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와 더불어 조선왕조 3대 연대기로 꼽힌다.

하지만 실록과 승정원일기가 지금의 국왕을 '상(上)'이라 해서 3인칭으로 표현하며 기사들을 시간 순서로 서술한 편년체인 데 비해 일성록은 국왕을 1인칭 용어인 '여(予)', 즉, '나'라고 해서 국왕 주도의 기록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 순으로 사안들을 기록한 강목체다.

일성록은 단순한 조선후기의 역사 기록물에 그치지 않고, 18~20세기 동서양의 정치·문화 교류의 구체적 실상과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을 담은 기록물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연합뉴스